



# 박람회 없인 베를린 경제도 없다

## 독일 연방 수도의 자존심 '메세 베를린'

독일의 수도 베를린 박람회장은 규모 면에서 국내 다른 도시에 비교했을 때 조금 처지지만 '메세의 나라' 중심답게 탄탄한 위상을 자랑한다. 전시규모 16만㎡는 뉘른베르크와 함께 세계 19위, 국내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은 1억4천500만 유로(약 2조3천억원)로 세계 10위 권에 근접해 있다. 베를린 박람회장 운영 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박람회장 인근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이다.

### 년 1만8천여업체 참여... 일자리 60여만개 창출

### 컨벤션센터와 연계 운영, 작년 매출액 2조3천억

주요 회의의 등 행사를 하는 컨벤션센터는 베를린 박람회장과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그러나 구름다리 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로 봐도 무방하다. 컨벤션센터인 'ICC(Internationales Congress Centrum) 베를린'의 규모는 무려 15만2천㎡. 박람회장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건물은 폭 80m, 높이가 40m에, 길이는 320m에 달한다. 80개 홀에 9천1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로비 공간은 5천500㎡나 된다.

일종의 회의장인 ICC가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다. 베를린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법인 '메세 베를린 유한회사' 대변인 미하엘 호퍼씨는 "동독 지역이던 이곳에 이렇게 큰 규모의 회의장이 건설된 것은 서독 측과 힘겨루기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건물 유지비 등으로 인해 ICC만을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적자가 나는 게 사실이지만 박람회장과 합쳐 계산하면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최근 세계적 추세가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동시 개최라는 점"이라며 "메세 베를린의 경우 이런 추세를 누구보다 일찍 감지하고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성능 좋은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됐다면, 제품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회의에서 함께 짚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의 필수 인력인 통역·번역가 등을 다수 확보하는 등 회의의 규모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ICC에서 열린 국제회의나 컨퍼런스는 1만5천100명에 달하고 외국인 270만명을 포함한 600만명이 참석했다. 오락행사까지 합친 경우 총 방문객 수는 1천만명을 넘는다.

ICC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해서 베를린 박람회가 결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1923년 박람회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메세 베를린은 매년 1만8천여 업체(해외 업체 70% 차지)가 참여해 1백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21~24개의 자체 주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40개 가량의 외부회사 주관 박람회에 전시공간을 대여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급 주요 5대 박람회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International Tourism exchange Berlin), 국제가전박람회(IFA·Consumer Electronics Unlimited), 녹색 주간-국제식품 및 농업박람회(International Green Week), 국제항공우주박람회(ILA·International Aerospace Exhibition), 국제철도차량박람회(Inno Trans·International Trade Fair for Transport Technology) 등이다.

IFA는 베를린 박람회장 인근에 독일 최초의 라디오 송신탑이 있던 이점 때문에 명성을 얻었고, 녹색 주간은 독일 농민들의 연례회의가 열린 데서 비롯돼 국제박람회까지 이어지는 등 대부분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30년도에 열린 IFA는 아인슈타인이 개최 선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메세 베를린 홍보실 수석관장자 베르트 슈체씨는 "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박람회 참가자들이 박람회장에서 쓰는 돈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광, 숙박 등에 사용한다"며 "또 베를린 박람회가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등 독일의 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베를린 전체 경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세 베를린은 한국에도 한독상공회의소 내에 대표부를 두고 박람회 참가업체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3780-4643.

/베를린=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1천명 동시 수용... 숙박·교통·관광 등 최적 인프라 구축

### 베를린 컨그레스 센터

통일 전 동(東)베를린의 중심부인 알렉산더 광장은 지금도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광장의 중심엔 TV·라디오 송신탑이자 베를린의 상징인 베를린 타워(368m)가 있고, 주변엔 베를린 시청 건물, 베를린 대상당 등 볼거리가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광장에 위치한 베를린 컨그레스 센터(BCC·Berliner Congress Center)는 순수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베를린 시내 중심에 있는 점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건물이라는 점 등을 심분 활용해 성공적으로 꾸러나가고 있다.

BCC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건물의 역사다. 1960년대 초 동독 컨그레스 홀이란 이름으로 개장한 이 건물은 베를린 타워를 설계한 건축가 헤르만 헨셀만이 지었다. 독일의 세계적 건축학교 바우하우스 출신인 그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통유리 건물로 설계해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1960대 후반에는 동독 의회 건물로도 쓰였다. 최근엔 국보급 건축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BCC가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이 건물을 인수한 것은 2001년. 같은 그해로 인해 체 안은 최첨단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리



BCC 기획 책임자 올리버 회프너(오른쪽)씨가 3층 메인 홀에서 BCC를 찾는 방문객에게 각종 첨단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델링 비용만 3천만 유로(약 470억원)가 들었다. BCC는 2003년 세계안과의사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재개장을 했다.

BCC 총 매니저 헬로 브라켄호프씨는 "연면적 1만㎡ 규모의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1천명을 동시 수용, 23개 회의실로 나눌 수 있는 탄력적 구조의 건물 내부를 완성했다"며 "70명 정도의 많지 않은 직원이 일하지만 그들의 젊음과 열정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운영방식에는 효율을 중요시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다. 국가 지원이 없지만 재개장한 2003년부터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가장 이듬해인 2004년에 비해 배로 늘었다. 이 곳의 주 고객층은 기업가 단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단체, 정당, 각종 대형시상식 주최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알짜' 고객들이 많다.

이에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포기하고 전문가 집단만 따로 초대해 벌이는 행사로 대체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 컴퓨터 제조사인 휴렛팩커드(HP)는 650명을 BCC로 초청, 새 제품 소개 등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



'메세 베를린'은 전시 면적이나 운영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하진 못하지만 각종 컨퍼런스나 국제회의를 동시 개최하면서 '메세의 나라' 독일 수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자연 愛 !! 살고싶다

### 오랜기다림의 행복!!

'담양수북'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땅주 출석권 가임
  - 월급, 월세, 임대료 20~30% 정도
- 전담로 및 주차수도, 전기·수도, 전화·가스, 열매
- 주차대 차량 2~3대용 공간
  - 전담부담금, 계약부담금 등
- 전담주세 30만원 이하
- 1시간 2000원 월세(세월) 배면
- 분양가 1억 1000만~1억 2000만 원

※ 문의는 김  
담당부서: 02-3780-4643

시책 : (주) 동원주택개발  
시공 : (주) 서원주택개발  
www.dovestate.com  
문의처 02-251-4000 / 04-383-2346

## 재혼만 10년!

● 좋은 재혼처는 수없이 많지만  
● 하지만 10년을 함께한  
● 재혼처를 찾지 않고도 10년을  
● 행복하게 살아가는  
● 방법은 '재혼'을 배우는 것  
● 이혼·재혼·10년째 재혼하는 이유  
● 이혼·재혼·10년째 재혼하는 이유

● 행복결혼 상담 4개월  
www.hksc.com

11월 15일 527-3388  
어 커를 매니저 직권 구함